신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6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9월 28일 (음력 8월 7일) 목요일

# 5전시실은 관람하지 마세요?

## 광주비엔날레, 남미작가 反美작품 동선 바꿔 논란

2006 광주비엔날레의 제5전시관이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반미(反美) 성향의 작품을 담은 제5전시실 입장객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5전시실을 지나치도록 관람동선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남미섹션으로 불리는 제5전시실에는 '미국적 제국주의와 전쟁을 전시하기'를 주제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출신 다국적 작가 8명이 출품한 '비지니스가 된 전쟁', '테러리즘 대항세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민중전쟁 : 제국주의에 대한 반기'등 4개 부문 16개 영상물이 전시돼 있다.

'제국전쟁, 비지니스가 된 전쟁'은 미국이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무차별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일부 작품은 미군병사들의 이라크 포로 학대 동영상을 담는 등 반미성향의 작품들이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작가·작품들을 초청·전시한 비엔날레 사무처가 이젠 관람을 막거나 관람누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엔날레측은 개막 4일째인 지난 11일부터 5전시실 입구 바로 옆에 관람객이 빠져나가는 출구를 설치했다. 이는 관람객들이 전체 전시를 볼 수 있도록 1전시실~5전시실까지 순회한 뒤 출구로 빠져나오는 기존의 '강제동선' 도중에 관람객들이 마지막 5전시실을 빠뜨리고 나가게 하는 효과를 낸다. 실제로 대부분 관람객들은 5전시장 입구측면을 출구로 착각해 관람장을 빠져나오는 등 본의 아니게 관람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여기에다 재단측이 5전시실 안 벽면에 '이 작품들은 참여단체들의 관점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안내판까지 설치, 관람객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단체 관람일 경우 인솔교사에게 5전시실 관람 여부를 물어 관람을 허용하고 있고, 초등학생 개인 관람객은 안내요원과 도슨트들이 관람을 통제하고 있다.

재단이 출구를 변경하는 이같은 무리수를 둔 이유는 5전시실의 반미성향 작품에 대해 일부 입장객들이 '반미성향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항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비엔날레 재단의 조치가 알려지자 지역 미술계는 당초 전시개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큐레이팅의 미숙 탓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미술인들은 5전시실의 경우 개막 당시부터 정치구호를 모은 자료관에 불과한데다 작품의 완성도마저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자유로운 표현을 인위적으로 막는 게 비엔날레 정신에 부합하느냐는 비난도 많다. 한 지역 미술계 인사는 "비엔날레가 미술을 경직된 시각으로 해석, 관람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전시총감독이나 큐레이터들은 출품작의 내용을 사전에 몰랐단 말이냐"고 비난했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작품을 들여놓고도 관람을 통제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와 관련,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일부 관람객들이 남미섹션의 이념편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다 관람에 지친 입장객들이 밖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동선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 내년 1인 세금 383만원

## 20만원 증가…예산 238조 편성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4% 늘어나는 238조5천억원으로 짜여졌다. 공무원 임금은 2.5% 인상되고 총인건비는 7.0% 증가한다. 내년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올해보다 4만3천명이 늘어난 163만1천명으로 파악돼 관련 예산으로 6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관련기사 3면〉

내년도 1인당 세금(국세+지방세) 부담액은 383만원에 달해 올해 363만원보다 20만원 가량 늘어난다. 일반회계 재정수입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8조7천억어치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며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9조원이 증가한 303조원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33.4%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08년 32.9%, 2009년 32.3%, 2010년 31.3%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질 성장률은 2008년 4.9%, 2009년.2010년 각 4.8% 등으로 잠쟁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내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안 등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일반회계.특별회계 164조7천억원, 기금 73조8천억원 등 모두 238조5천억원으로 정했다. 또 일반회계에서 국세수입이 142조5천억원, 세외수입이 6조8천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158조원에 이르러 부족분 8조7천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4조6천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2.5%로 제한하는 등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광주 1조4172억 전남 4조7718억 국비 대폭 반영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대폭 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내년 정부 예산안 국비 반영액이 광주가 94건에 1조4천172억원, 전남은 279건에 4조7천718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반영 규모는 지난 해 1조1천257억원에 비해 26%가 늘었으며 전남도는 4조3천415억원보다 9.9% 증액, 양 시·도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채희종기자 chae@ /홍행기기자 redplane@

참조기 80%·홍어 63%·명태 62%·대구 51%

# 수입수산물 시장 점령

수입 수산물이 해마다 급증, 국내산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추석을 앞둔 광주 양동시장 어물전에서 러시아산 마른 명태가 국내산보다 20~30% 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27일 추석 차례상을 보려고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주부 이모(36·북구 두암동)씨는 어물전을 둘러보고는 깜짝 놀랐다.

국산 마른 명태를 사려고 반시간 넘게 골목골목을 돌았으나, 결국 발품만 팔고 말았다. 어물전에 나온 명태는 하나같이 러시아산이었다.

이씨는 "수입산을 차례상을 올릴 수 없어 국내산을 찾았는데, 모조리 수입산이어서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명태를 상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농산물에 이어 외국산 수산물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이나 할인점에서 수입산이 판을 치고 있다. 대표적인 제수용품인 명태를 비롯해 민어·참조기·홍어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산은 아예 실종됐고, 그 자리를 수입산이 점령한 상태다.

## 어물전 명태 모두 러시아산 "차례상 올리는것 포기했어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수협광주공판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부세·민어·새우·갈치 등 20여종의 수입산 수산물이 진열대마다 가득차 있다.

광주공판장 관계자는 "중국·태국·일본·필리핀산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며 "수입산 가격이 국내산보다 20~30%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내 할인점에서도 수입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A할인점의 경우 수입산 명태·명태알·적새우살·갑오징어·부세·연어 등 30여종이 국내산보다 10~30% 싸게 판매되고 있다.

27일 수협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광주·서울 등 전국 7개 수산물 공판장에서 판매된 수산물 비중은 33.8%(2만1천675t)로 지난해 동기보다 8%나 늘었다. 특히 제수용으로 차례상에 오르는 참조기는 수입산이 79.7%나 됐고, 홍어 63.2%, 명태 62.4%, 대구 51.4%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산 갈치가 제주산 먹갈치로 둔갑하는 등 수입산 꽃게·병어 등 많은 품목들이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되고 있어 국내산의 설자리가 차츰 좁아지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